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톰스크 주(Томская область) 기술 개발과 혁신의 선도 지역으로 나서다

<표지 1> 톰스크 주의 톰 강



<표지 2> 톰스크 주의 주 상징



<표지 3> 톰스크 주의 석유화학 공장



<목 차>

서문

I. 종합 개관

1. 개관
 - 1.1 위치
 - 1.2 일반개황
2. 자연환경
 - 2.1 지리
 - 2.2 기후와 식생
3. 주 상징
 - 3.1 주 기
 - 3.2 주 문장

II. 상세 개관

1. 역사
 - 1.1 형성
 - 1.2 발전
2. 정치
 - 2.1 행정부
 - 2.2 주 의회
 - 2.3 대통령 선거 (2012년)
3. 경제
 - 3.1 경제 개관
 - 3.2 지역 총생산(GRP)
 - 3.3 주요 산업
 - 3.4 투자현황과 대외교역량
4. 사회
 - 4.1 인구 및 민족구성
 - 4.2 행정구역
 - 4.3 교육
5. 문화
 - 5.1 문화개관
 - 5.2 문화유적과 관광지
6. 한국과의 관계

<서문>

톰스크 주는 시베리아의 중앙에 위치한다. 면적은 31만 4400km²로 한국의 약 3배 정도이다. 톰스크 주의 기후는 전형적인 습윤대륙성기후이다. 겨울은 춥고 길어야 하며 여름은 온난해야 하고 평균기온 10°C가 넘는 달이 4개월 이상이어야 습윤대륙성기후라 할 수 있는데, 톰스크 주는 여기에 부합한다. 5월~8월까지 4개월 간 평균기온이 10°C를 넘긴다. 여름은 온난한 반면 겨울은 길고 춥다. 톰스크 주의 연중 강수량은 567mm이고, 월평균 강수량은 47.25mm로 기록되고 있다. 당연히 여름철 강수량이 많다. 그러나 겨울 역시 길고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강수량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그려진다.

<서문 1> 톰스크 주의 자연



톰스크 주에는 약 2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 이후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톰스크 주는 시베리아에 러시아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쿨리아 문화’로 명명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다. 러시아인이 유입되고 그 결과 톰스크 지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604년 군사요새가 건설된 시기부터이다. 보리스 고두노프(1552년~1605년)의 명령에 의거 톰스크요새가 건축되었으며 이후 이 요새는 시베리아 개척의 전초기지로서 기능했다. 19세기에 금광이 발견되고 모피산업이 발달하자 톰스크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고 무역이 활발해졌다. 1914년경 톰스크는 러시아의 20개 대도시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서문 2> 톰스크 시



톰스크 주가 가진 경제·문화적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톰스크 주 경제의 핵심은 광업이다. 2014년 현재 톰스크 주 전체투자총액 가운데 과반에 가까운 44%가 광업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10년 사이 톰스크 주 투자총액은 4배 가까이 성장되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광업과 관련된 투자인 것이다. 철광석, 티타늄, 지르코늄, 스칸듐, 카오린, 동 등이 매장된 것으로 예측되는 12개의 광산이 현재 탐사 중에 있다. 특히 이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탄의 잠재 매장량은 287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석유 채굴가능량도 14억 4900만 톤이며, 가스 채굴가능량도 6320억m³에 이른다.

<서문 3> 톰스크 주 ‘스네즈노예’ 가스 산지



톰스크 주에 주로 목재 관련 공장이 많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톰스크 주의 북부지역은 주로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부는 인구의 대부분이 목재 가공에 종사하고 있다. 톰스크 주는 지역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톰스크 주의 전체 산림 면적은

283만 6400ha이며, 그 중에서 침엽수림의 면적은 101만 8300ha이고, 목재면적은 27억 8000만㎡이며, 목재가 풍부하여 종이와 연필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성냥공장 ‘시비르’(Сибирь), ‘톰스크 성냥공장’(Томская спичная фабрика) 등과 연필공장들이 있다. 가구제작회사 ‘십카벨’(Сибкабель), ‘톰스크카벨’(Томсккабель) 등이 톰스크 주에 위치해 있다.

<서문 4> 톰스크 주 벌목 현장



톰스크 주의 특징을 간추릴 때 언급될 수 있는 세 번째 사항은 인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1888년 톰스크에는 우랄산맥 너머에서는 첫 번째로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1900년대에는 공대가 들어섰고, 1901년에는 시베리아에서 처음으로 상업학교가 세워졌다. 그리고 1902년에는 사범대학이, 1910년에는 고등여자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톰스크 주는 시베리아의 학문과 지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면서 수많은 인재가 집결하고 있다. 경제개발이 자원과 인력의 조화 위에서 가능하다면 톰스크 주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톰스크 주의 관계 역시 톰스크 주가 갖는 학문적 역량, 기술주도적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 2003년 11월 12일 울산시와 러시아의 톰스크시 간의 자매결연이 러시아 톰스크시 소재 톰스크국립대학에서 체결됐다. 이때 울산시는 “톰스크시의 세계적인 기초과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톰스크시의 과학기술자 초청사업과 양 도시의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산업단지와 톰스크 주의 기술력은 좋은 파트너십의 형성 조건이 되었다. 이후 두 도시는 각자가 가진 역량을 발전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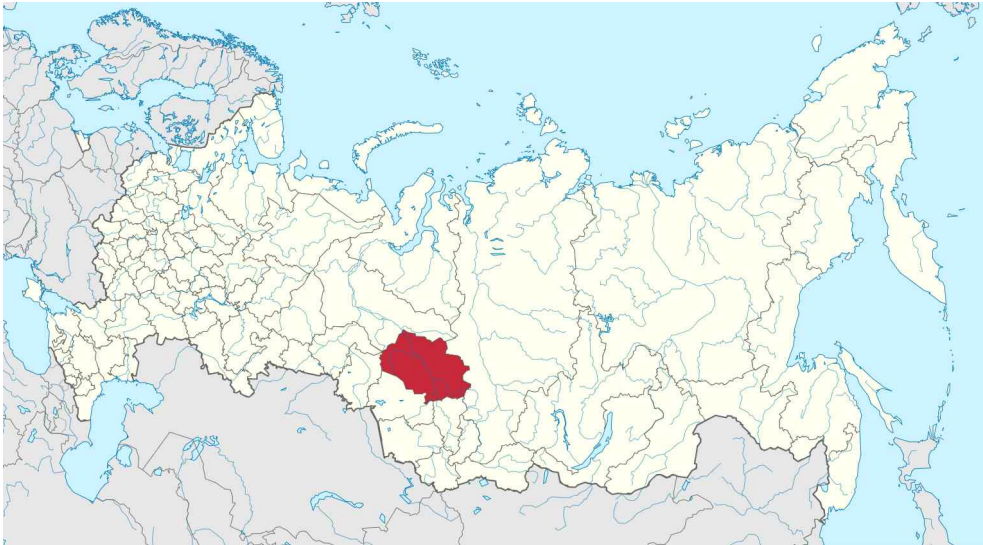
Ⅰ. 종합개관

1. 개관

1.1 위치

톰스크 주(Томская область)는 시베리아의 중심지역에 있다. 톰스크 주의 동남쪽은 서시베리아 평원이다. 면적은 31만 4400km²로 한국의 약 3배이며, 러시아 전체 면적에서 1.7%를 차지한다. 동-서간 거리는 780km이고, 남-북간 거리는 600km이다. 톰스크 주의 남쪽으로는 케메로보 주(Кемеровская область)와 노보시비르스크 주(Новосибирская область), 서남쪽으로는 옴스크 주(Омская область), 서·북서쪽으로 한티만시자치구(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동·동북쪽으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와 접해있다.

<그림 1> 러시아 연방 내의 톰스크 주 위치



1.2 일반 개황

<표 1> 톰스크 주 일반 개황

공식명칭	톰스크 주(Томская область)
주도(州都)	톰스크 시(570,776명)(2022년 기준)
면적	31만 4400km ² (한국의 약 3배, 러시아 전체 면적의 1.7%), 동서간 거리 780km, 남북간 거리 600km.
성립일	1944년 8월 13일
기후	대륙성기후, 1월 평균 -20.3°C, 7월 평균 +18.3°C
인구	1,068,304명(인구밀도 3.4명/km ² , 2022년 기준)

지형	평평한 늪지대가 대부분. 오비 강은 강 중간 부분에 두 개의 평지로 나누어지며,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교차함. 지형이 높은 강우안 지역은 늪지대가 적어 주거에 보다 적절함. 강 주변의 분지가 영토의 1/5을 차지. 톰스크 주를 크게 중앙타이가, 남부타이가, 관목스텝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민족구성	러시아인 (88.1 %), 타타르인(1.6 %), 우크라이나인 (1.1 %) 등
공용어	러시아어
주지사	블라디미르 마주르 블라디미로비치(Владимир Мазур Владимирович)
주 의회 의장	옥사나 비탈리에브나 코즐롭스카야(Оксана Витальевна Козловская)
소속 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경제지구	서시베리아경제지구
지역 총 생산 (GRP)	5,569억 4,190만 루블(202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P)	51만 8,179 루블(2020년 기준)
주요산업	채광산업(27.5%), 제조산업(10.1%), 부동산(9.7%), 운송·보관(8.3%), 자동차(8.0)
주요자원	이탄, 철광석, 석탄, 석유, 가스, 규소가루왕 희귀광물, 산림자원, 관광 자원
주요도시	세베르스크(112,143명), 스트레지보이(39,903명), 아시노(24,442명), 콜라세보(22,589명)
행정구역 구성	4개 시(市), 16개 군(郡), 3개의 도시형 마을과 115개의 농촌 마을

2. 자연환경

2.1 지리

<그림 2> 톰스크 주를 가로지르는 오비강



톰스크 주의 지형은 평평한 늪지대가 대부분이다. 오비강은 강 중간 부분에서 두 개의 평지로 나누어져서는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교차하면서 흘러간다. 시베리아는 예니세이강을 기점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는데, 시베리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한 톰스크 주는 저지대에 속한다. 톰스크 주는 서시베리아 평원만 놓고 보면 동남쪽에 위치한다. 알타이산맥에서 발원하여 노보시비르스크를 거쳐 오비만(灣)으로 흘러드는 오비강이 톰스크 주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다.

톰스크 주는 지역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은 타이가, 늪지대, 관목 스텝지역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타이가는 추운 삼림지역으로서 침엽수가 주로 자란다. 늪지대는 자작나무가 많이 분포한다. 습기가 많은 늪지대에 분포한 자작나무에서 러시아의 유명한 차가버섯이 많이 자라고 있다. 톰스크 주는 차가버섯 생산의 양질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인들은 차가버섯이 암을 치료하고 위궤양을 낫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 '늪에서 나온 지구의 폐'라고 부른다. 큰 지류인 오비강은 톰, 바슈간, 추름, 케트 강으로 나뉘는데, 강의 우안은 지형이 높아 거주지로 적합하며, 강의 좌안은 늪지대가 많아 차가버섯의 자생지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림 3> 톰스크 주의 자연



2.2 기후 및 식생

톰스크 주의 기후는 추운 겨울이 길고 온난한 여름 날씨를 보이는 습윤대륙성기후로 분류된다. 연평균 기온은 0.9°C이며, 여름철 평균기온은 16.8°C, 겨울철 평균기온은 -13.4°C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지역의 연평균기온이 -0.6 °C, 북동지역은 -3.5 °C를 기록하고 있다.

톰스크 주의 연중 강수량은 567mm, 월평균 강수량은 47.25mm로 기록하고 있으며, 여름철 강수량의 수치가 제일 높으나, 많은 강설량으로 강수량 그래프의 곡선이 비교적 완만하다.

<그림 4> 톰스크 주의 기온 변화와 강수량



위 도표의 맨 첫 칸은 월(1~12월까지), 두 번째 칸은 최고기온, 세 번째 칸은 평균 최고기온, 네 번째 칸은 평균 기온, 다섯 번째 칸은 평균 최저기온, 여섯 번째 칸은 최저기온, 마지막 칸은 평균 강수량(mm)을 나타낸다.

2.3 주요자원

톰스크 주의 이탄 보유량은 러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다. 철광석, 티타늄, 지르코늄, 스칸듐, 카오린, 동 등이 매장된 것으로 예측되는 12개의 광산이 현재 탐사 중에 있다. 박차르스키의 철광석 매장량은 1000억 톤이며, 석탄의 잠재 매장량은 54억 7000만 톤, 이탄의 잠재 매장량은 287억 톤이다.

석유 채굴가능량은 14억 4900만 톤이고, 가스 채굴가능량은 6320억m³이다. 탐사된 전체 석유량은 33.9%이고, 가스는 55%이다. 톰스크 주에서 98개의 유전 및 가스

전이 발굴되었으며, 그 중 78개가 유전이고, 15개가 석유콘덴세이트 광구, 7개가 가스콘덴세이트 광구이다. 전체 유전 및 가스전 중에서 69개가 자원개발회사에 넘겨진 상황이다.

<그림 5> 톰스크 주의 석유채굴



티타늄 광산은 투간스키와 게오르기엠프스키 지역에서 발굴되었고, 규소 가루와 희귀광물은 투간스키 지역에 51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또한 망간, 아연, 안티몬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톰스크 주의 전체 산림면적은 283만 6400ha이며, 그중 침엽수림의 면적은 101만 8300ha이다. 목재량은 27억 8000만m³이다. 톰스크 주에는 16개의 특별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1곳은 러시아연방정부가 지정한 것이며, 15곳은 주정부가 지정한 자연보호지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정한 144개의 자연명소가 있다. 이중 한 곳은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랄 동쪽에 있는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이 바로 그곳이다.

<그림 6> 톰스크 주의 산림자원



3. 주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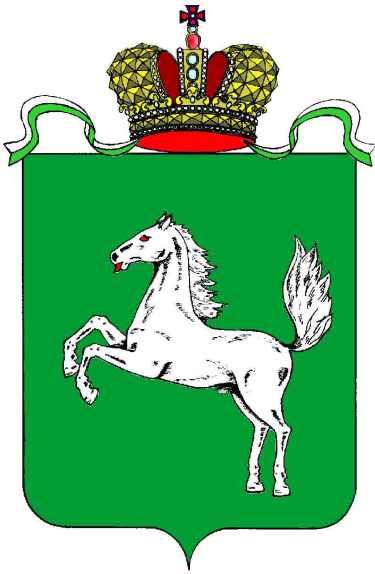
3.1. 주 문장

툰스크 주의 문장은 툰스크현(縣)의 문장(1878년 7월5일 승인)을 기본으로 만들어 졌다. 문장의 제작자는 알렉산드르 아키모프(Александр Акимов)이며 대(大)문장과 소(小)문장이 있다.

툰스크 주의 대문장은 녹색의 프랑스식 방패(가로와 세로가 9:8의 비율)에 안에는 왼쪽을 향해 도약하는 백마가 그려져 있는데, 백마의 눈과 혀는 붉은 색이다. 이 방패는 황제의 왕관이 씌워져 있고, 금색의 떡갈나무 가지와 붉은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다. 소문장은 금색 떡갈나무 가지와 붉은 리본이 없이 왕관이 없어진 방패만 그려져 있다. 도약하는 백마는 힘과 용기를 상징하며 방패의 녹색은 툰스크 주의 자연을 나타낸다.

<그림 7> 툰스크 주의 주 문장 (대(大)문장과 소(小)문장, 두 개가 쓰인다)





3.2. 주 기

톰스크 주의 기는 1997년 3월 29일자 톰스크 주 국가두마의 결정(톰스크 주의 문장과 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되었다. 톰스크 주의 기는 길이와 넓이의 비율이 2:3이다. 바탕은 하얀색이다. 그 중심에 톰스크 주의 소문장이 전체 면적의 1/3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소문장을 황금빛 떡갈나무가지와 녹색과 흰색의 리본이 둘러싸고 있다.

<그림 8> 톰스크 주의 주 기



II. 상세개관

1. 역사

1.1 형성

톰스크시(市) 외곽에서 카트첸코(Н. Ф. Катценко)가 구석기 시대의 톰스크 유적

지(약 18,300년±1000년 전)를 발견하였으며, 톰스크 주(州)의 몰차놉스키군(郡)에서는 모고치노 I(Могочино I) 유적지(20,150년±240년 전)가 발견되어 약 2만 년 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중석기 시대를 보여주는 바산다이카(Басандайка) II 유적지도 톰스크 주에서 발견되었다. 톰스크 주 지역에서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등장한 것은 기원전 15~14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사무시 마을에서 발견되어 사무시(Самусь) IV로 이름 붙여진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유적(기원전 17~13세기)을 대표하는 곳이다. 철기시대의 문화는 셸로모크(Шеломок) I, II 유적지(기원전 5~3세기)에서 발견되었으며, 바사다이카(Басандайка)와 키지로보(Кижирово) 마을과 사무시(Самусь) 마을에도 이 시기의 문화유적지가 보존되어 있다.

시베리아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현재 톰스크 주 영토에는 쿨라이 문화(Кулайская культура)를 이룩한 쿨라이인(кулайцы)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쿨라이인은 서시베리아에서 기원전 4~3세기 중반부터 기원 후 1세기 중반까지 살았으며 그 이후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학계에서는 쿨라이 문화가 우그르족, 케트족의 선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쿨라이인은 '우리 모두가 우주의 일부'이며 세상이 3개의 계(천상계, 중간계, 지하계)로 이루어졌다는 세계관을 가졌다.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유적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림 9> 쿨라이문화의 유적들



1.2 발전

러시아인이 유입되고 그 결과 톰스크 지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604년 군사요새가 건설된 시기부터이다. 보리스 고두노프(1552년~1605년)의 명령에 따라서 톰스크요새가 건축되었으며 이후 이 요새는 시베리아 개척의 전초기지들 중 하나가 되었다. 1804년 톰스크는 톰스크현(縣)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 당시 톰스크

현에는 알타이 변경주, 노보시비르스크주, 케메로보주, 보스토츠노-카자흐스탄주, 톰스크 주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의 일부가 포함되었다.

19세기에 금광산업, 야금, 모피산업 등이 발달하자 톰스크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이 활발해졌다. 중요한 교통로였던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노선이 톰스크를 관통하여 지나가게 되었으며, 1914년경 톰스크는 러시아의 20개 대도시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888년 톰스크에는 우랄산맥 너머에서는 첫 번째로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1900년대에는 기술대학이 들어섰고, 1901년에는 시베리아에서 처음으로 상업학교가 세워졌다. 그리고 1902년에는 사범대학이, 1910년에는 고등여자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톰스크는 시베리아의 학문과 지성의 수도가 되었다.

1930년대에 톰스크는 행정적 의미를 상실하였다가 1944년 8월에서야 다시 주(州)의 중심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톰스크시는 전쟁을 피해 온 수십 개의 기관들과 학술 및 문화 단체들을 수용하였다. 후에 톰스크의 수많은 기업들이 과학센터를 중심으로 연결되었으며, 1970년에는 소련과학아카데미 톰스크 과학센터가 문을 열었다.

1950년대에 톰스크 주에는 소련에서는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핵연구센터 ‘시베리아 화학콤비나트’(Сибирский химический комбинат)가 설립되었다. 1960~70년대에 톰스크 주에는 석유채굴이 시작되었으며, 톰스크 석유화학콤비나트(Томский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й комбинат)가 건설되었다.

오늘날 톰스크 주는 러시아에서 주도적인 기술개발 혁신 중심지들 중 하나가 되었다. 톰스크에는 소련에서 처음으로 테크노파크가 건설되었다. 2006년에는 러시아연방에서 최초로 톰스크국립대학교에 ‘우호’ 세계산학협력센터(Межвузовский студенческий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Дружба»)가 문을 열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렇듯 톰스크 주는 구소련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러시아의 기술개발과 학문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림 10> ‘우호’ 세계산학협력센터를 방문한 러시아연방 주재 인도대사



2. 정치

톰스크 주의 주요기관은 톰스크 주정부, 톰스크 주 의회, 러시아 외무부 톰스크대표부, 러시아 연방보안부 톰스크지부, 톰스크시(市)이다. 행정조직은 4개 시(市), 16개 군(郡), 3개의 도시형마을과 115개의 농촌마을 등이다.

2.1. 톰스크 주 행정부

톰스크 주의 주 헌장에 따라 주지사는 톰스크 주의 행정업무에서 전권을 가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직자이다. 러시아연방 시민 누구라도 30세가 넘으면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를 통해 당선될 수 있다. 임기는 5년이다.

<그림 11> 톰스크 주 주지사 블라디미르 마주르(Владимир Мазур)



톰스크 주의 주지사 블라디미르 마주르(Владимир Мазур)는 1966년 6월 19일 톰스크 주에서 태어났다. 1992년 톰스크 주립대학교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3년 러시아 행정 아카데미에서 국가행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토볼스크 시장을 역임했고 2019년 5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칼루가 주에서 부지사를 역임했다.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칼루가 주 제1부총재를 지냈고 2022년 5월 10일부터 톰스크 주 주지사 대행으로 역임중이다.

2.2 입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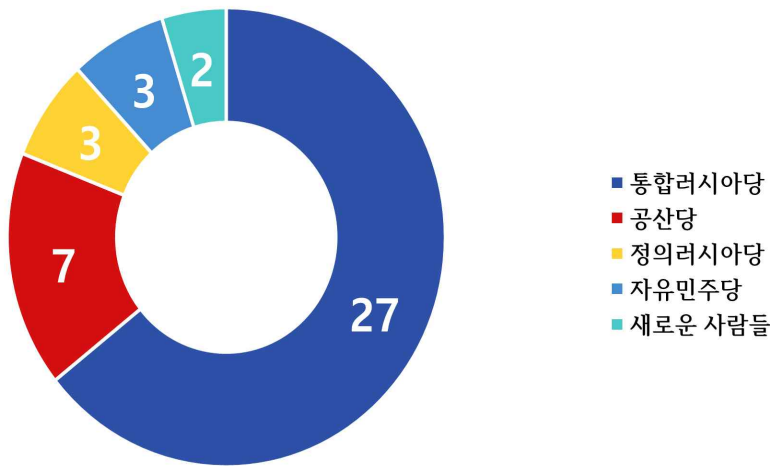
톰스크 주 입법의회는 톰스크 주 국가권력의 입법 기관이다. 1995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톰스크 주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라고 불리다가 개정된 연방 법률에 따라 '톰스크 주 입법의회'(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дума Томской области)라고 개명되었다. 톰스크 주 입법의회는 4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정원의 절반인 21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21개 선거구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평등선거와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그림 12> 톰스크 주 입법의회 건물



<그림 13> 제 6대 톰스크 주 의회 정당별 구성



톰스크 주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 옥사나 코즐롭스카야는 1954년 12월 톰스크 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톰스크 폴리텍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에는 러시아연방정부 산하 국민경제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경제학 박사이다. 산업 일선에서 엔지니어 기술자, 공작부서의 차장과 부장, 총관리자 등으로 일하였으며 톰스크시 옥타브리츠키 지역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67 136 204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톰스크 주 행정부에서 행정부 차관(1998~1999년), 톰스크 주 경제정책과 투자담당 부주지사(1999~2007년), 톰스크 주 제 1부주지사

(2007~2011년)로 일하였다.

제 5대 톰스크 주 의회 의장(2011~2016년)와 제6대 톰스크 주 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2021년 9월 ‘통합러시아당’으로 제 7대 톰스크 주 의회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림 14> 톰스크 주 의회 의장 옥사나 코즐롭스카야(Оксана Козловская)



2.3. 2018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2012년 3월 4일에 실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톰스크 주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57.7%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공산당의 대표 겐나디 주가노프는 18.85%로 2위에 머물렀다. 톰스크 주 전체 투표율은 58.22%로 러시아연방 전체 65.34% 보다는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표 2> 2018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후보별 득표율

번호	후 보 자	전국 평균 득표율(%)	톰스크 주 득표율(%)
1	푸틴(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76.69	66.92
2	그루디닌(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Грудинин)	11.77	17.99
3	지리놉스키(Владимир Вольфович Жириновский)	5.65	8.76
	총 투표율	67.5	61.2

<그림 15> 톰스크 주 한 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투표소 풍경



3. 경제

3.1 경제 개관

[표 3. 톰스크 주 주요 경제지표(2020년 기준)]

지표	주요내용
1. 명목GRDP (2020년, 백만 루블)	556,941.9
2. 1인당 명목GDP (2020년 기준, 루블)	518,179.5
3. 월 평균임금 (2020년 기준, 천 루블)	48.7
4. 대외교역 (2020년 기준, 백만 달러)	648
5. 외국인 투자액 (2020년 기준, 백만 달러)	123

톰스크 주는 러시아연방에서 시베리아연방관구와 서시베리아경제지구에 속한다. 톰스크 주는 서시베리아경제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중심지들 중 하나이다. 산업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지역총생산(GRP)은 5,569억 4,100만 루블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P)은 51만 8,179 루블(2020년 기준)이다. 주요산업은 채광산업(27.5%), 제조산업(10.1%), 부동산(9.7%), 운송·보관(8.3%), 자동차(8.0)이며, 주요자원은 이탄, 철광석, 석탄, 석유, 가스, 규소가루와 같은 희귀광물, 산림자원, 관광자원 등이다. 톰스크 주는 서시베리아의 경제 중심지들 중에서 건설, 산업과 동력, 광업 분야에서 300개 이상의 혁신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제 요충지이다. 톰스크 주의 북부지역은 주로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부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 및 목재 가공에 종사하고 있다. 톰스크 주의 전체 산림 면적은 283만 6400ha이며, 그 중에서 침엽수림의 면적은 101만 8300ha이고, 목재면적은 27억 8000만m³이며, 목재가 풍부하여 종이와 연필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톰스크 주의

경제성장 동력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력풀이다. 인구 중 29.7%가 고학력자이며 따라서 기술력 확보가 용이하다.

3.2 주요산업

톰스크 주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여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1941~1945년)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약 30개의 공장들이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이를 계기로 산업 전분야가 건설되었다.

1) 석유가스 산업

톰스크 주에 있는 석유가스 분야의 기업으로는 ‘톰스크네프티’(Томскнефть), ‘보스토크가즈프롬’(Востокгазпром), ‘가즈프롬 트란스가스 톰스크’(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톰스크네프테хим’(Томскнефтехим), ‘톰스크네프테페레라보트카’(Томскнефтепереработка) 등이 있다.

<그림 16> ‘톰스크네프티’ 본사



2) 식품산업

이 분야에서는 식품공장 ‘톰스키’(Томский), 제과공장 ‘크라스나야 즈베즈다’(Красная звезда), 맥주공장 ‘톰스코예 피보’(Томское пиво), 제분공장 ‘톰스키에 멜리니치’(Томские мельницы), ‘시비르스카야 아그라르나야 그루파’(Сибирская аграрная группа) 등과 몇 개의 제빵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3) 기타 산업분야

기계제조 분야의 기업들로는 ‘폴류스’(Полюс), ‘콘투르’(Контур), ‘톰스키 포드시프니크’(Томский подшипник) 등이 있으며, 건설자재 공장들로는 ‘콤포르트-Т’(Ко

мфорт-Т), ‘툼스키 건축 콤비나트’(Томский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툼스크산업건축회사’(Том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등이 있다.

성냥공장 ‘시비르’(Сибирь), ‘툼스크 성냥공장’(Томская спичная фабрика) 등과 연필공장들이 있다. 가구제작회사 ‘십카벨’(Сибкабель), ‘툼스크카벨’(Томскакабель) 등이 톼스크 주에 위치해 있다.

그 밖에도 의료 기술 분야에서는 ‘니코르’(НИКОР)사가 활동 중이다. 약제 산업은 ‘비리온’(Вирион)사와 ‘툼스크힘파름’(Томскхимфарм)사가 주도하고 있다.

<그림 17> 톼스크 성냥 공장



4) 교통

시베리아횡단철도가 건설된 이후부터 톼스크 주는 화물운송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었다. 톼스크 주를 통과하는 화물운송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톼스크 주는 지역 내 교통역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톼스크 주는 복잡한 교통난제가 산적해 있다. 심각한 교통체증, 열악한 도로상황, 낙후되고 그나마 그 수도 얼마 되지 않는 대중교통 노선, 노쇠한 전차, 손으로 꼽을 만큼 적은 기차 수송 등의 문제들이 톼스크 주 앞에 놓여 있다.

툼스크에서 처음으로 비행기가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1911년이며 정기 비행은 193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비행기는 노보시비르스크(Новосибирск), 콜파세보(Колпашево), 카르가소크(Каргасок) 등을 운행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공항은 카시타크(Каштак)에 위치해 있었는데 1967년 11월 6일 보가쇼보(Богашёво) 공항이 문을 열었다. 보가쇼보 공항은 톼스크로부터 남동쪽으로 14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다. 모스크바, 바르나울(Барнаул), 아바칸(Абакан), 크라스토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 니즈네바르툼스크(Нижевартовск), 스트레제보이(Стрежевой), 수르구트(Сургут)

yt) 등으로 정기노선이 운항 중이다. 또한 아나파,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페로폴, 소치 등으로 계절 노선이 운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국제선도 운항을 개시하였다.

톰스크시에는 톰(Томь)강을 가로지르는 남쪽에 있는 다리와 북쪽에 있는 다리, 이렇게 두 개의 대교가 있으며, 20여개의 크고 작은 교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다리나 교각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상태가 좋지 못하고 대중교통 노선이 한정되어 있는 등 부족한 교통역량이 더 큰 문제이다. 톰스크 주 행정부는 교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림 18> 톰(Томь)강을 가로지르는 남쪽 다리.



톰스크역은 타이가(Тайга)-벨리 야르(Белый Яр) 지선에 있는 철도 간선으로 톰스크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해준다. 1896년 건설된 시베리아횡단철도는 시베리아에 위치한 대도시들을 거쳐 갔으며 톰스크에도 부설되었다. 1961년에 이르러 톰스크 철도는 완공되었으며 현재 톰스크철도 간선은 서시베리아 철도에 속한다. 톰스크로부터 아나파(Анапа), 아시노(Асино), 레니노고르스크(Лениногорск), 벨리 야르(Белый Яр), 모스크바, 노보쿠즈네츠크(Новокузнецк), 타이가 등으로 운행한다.

<그림 19> 기차역 톰스크(Томск)-I



5) 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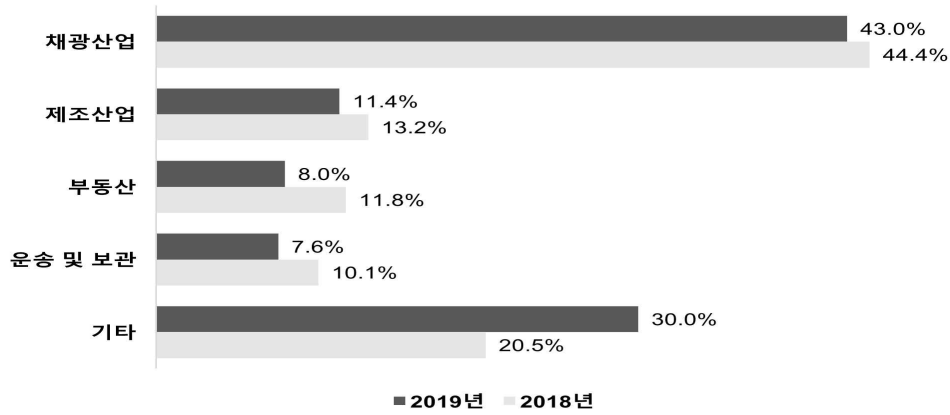
톰스크 주의 발전소시스템은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톰스크에 최초의 전기발전소 테츠-1(ТЭЦ-1)이 가동되기 시작한 1896년 1월 1일이였다. 그 후 1943년 5월에 시공을 시작하여 1945년 5월 28일에 가동하기 시작한 GPES(ГРЭС-2)와, 1982년 건설을 시작하여 1988년 10월 29일 가동을 시작한 테츠-3(ТЭЦ-3) 등이 톰스크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발전소로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스크 주는 현재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그림 20> 톰스크 열병합 발전소 테츠(ТЭЦ-1)



3.3. 톰스크 주의 투자현황

<그림 21> 고정자산 투자 현황(경제활동 유형별)



채광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부동산, 운송업이 순서대로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축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20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으로는 1억 2,375만 달러이다.

4. 사회

4.1 인구와 민족구성

<표 4> 톱스크 주의 인구변화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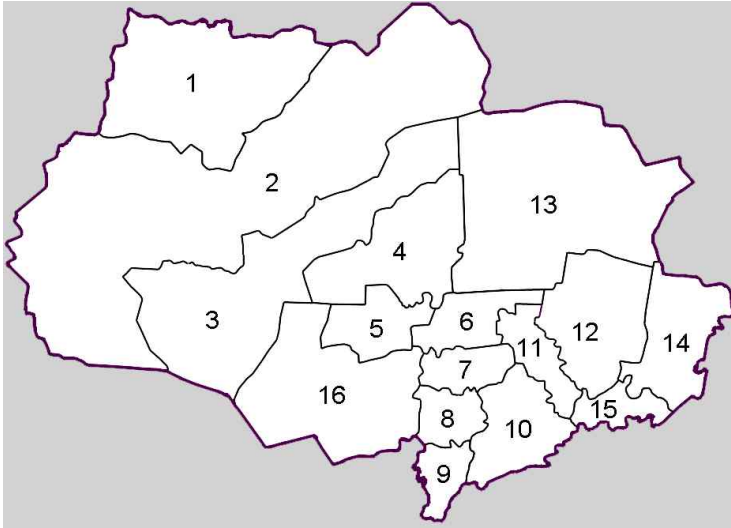
년도	총인구	구분(인구수)		구분(%)	
		도시거주	농촌거주	도시거주	농촌거주
2016년	1,076.8	777.3	299.5	72.1	27.9
2017년	1,078.9	780.4	298.5	72.3	27.7
2018년	1,078.2	780.8	297.4	72.4	27.6
2019년	1,077.4	781.2	296.2	72.5	27.5
2020년	1,079.2	781.4	297.8	72.4	27.6
2021년	1,070.3	771.5	298.7	72	28
2022년	1,068.3	771.5	296.7	72.2	27.8

2022년 기준 러시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톱스크 주의 인구는 1,068,304명, 인구 밀도는 3.4명/km², 도시 거주 인구는 72.2%(771,588명)에 달한다. 톱스크 주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당면한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구성은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러시아인(88.1%), 타타르인(1.6%), 우크라이나인(1.1%) 등으로 나타났다.

4.2 행정구역

톰스크 주의 행정구역은 4개의 시(市), 16개 군(郡), 3개의 도시형 마을과 115개의 농촌 마을로 구성된다.

<그림 22> 톰스크 주 행정구역



<표 5> 톰스크 주 행정구역

구분	명칭	중심지	면적 (km ²)	인구수 (2022년)
시(市)				
I	케드로비(Кедровый)	케드로비	1,697	2,996
II	세베르스크(Северск)	세베르스크	485,7	112,143
III	스트레제보이(Стрежевой)	스트레제보이	31,5	39,903
IV	톰스크(Томск)	톰스크	294,6	589,701
군(郡)				
1	알렉산드롭스키(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알렉산드롭스코예 마을	29,900	69,204
2	카르가속스키(Каргасокский)	카르가소크 마을	86,900	18,710
3	파라벨스키(Парабельский)	파라벨 마을	35,846	12,016
4	콜파셴스키(Колпашевский)	콜파세보 시(市)	17,112	37,148
5	차인스키(Чаинский)	포드고르노예 마을	7,242	11,418
6	몰차놉스키(Молчановский)	몰차노보 마을	6,351	12,106
7	크리보세인스키(Кривошеинский)	크리보세이노 마을	4,400	11,759

8	셰가르스키(Шегарский)	멜니코보 마을	5,030	19,004
9	코제브니콥스키(Кожевниковский)	코제브니코보 마을	3,908	20,301
10	톰스키(Томский)	톰스크 시(市)	10,064	81,181
11	아시놉스키(Асиновский)	아시노 시(市)	5,943	33,448
12	페르보마이스키(Первомайский)	페르보마이스코예 마을	15,554	16,331
13	베르흐네켓스키(Верхнекетский)	벨리 야르(Белый Яр)	43,349	15,678
14	테굴데트스키(Тегульдетский)	테굴데트 마을(село Тегульдет)	12,300	6,033
15	지랴스키(Зырянский)	지랴스코예 마을(село Зырянское)	3,966	11,122
16	박차르스키(Бакчарский)	박차르 마을(село Бакчар)	24,700	11,635

4.3 교육

톰스크 주에는 톰스크국립대학교, 톰스크국립사범대학교, 톰스크법대, 톰스크건축대학교 등이 있다. 언론사로는 「크라스나예 즈나냐」지, 「톰스키예 베스트닉」지, 「베체르니 톰스크」지가 있다. 문화·예술기관으로는 톰스크 주 지리학박물관과 톰스크 주 예술박물관이 있다.

<그림 23> 톰스크국립대학교(1878년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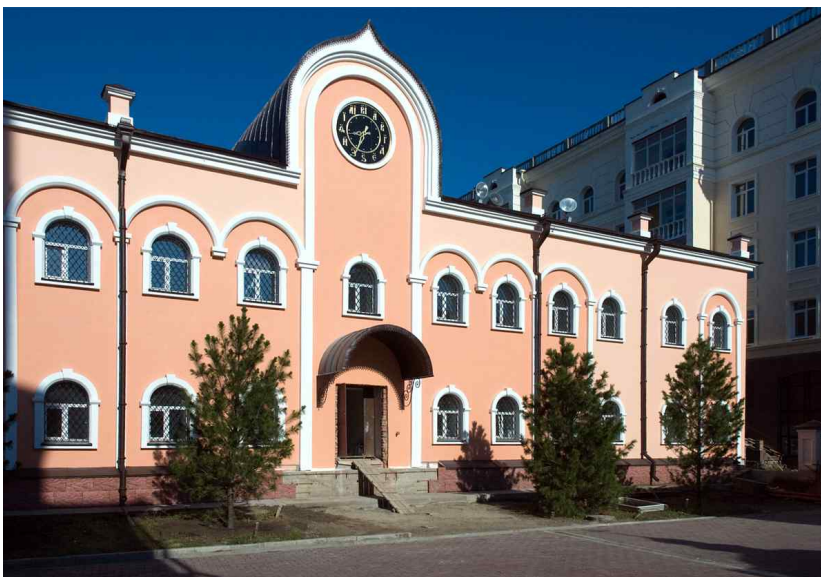
2017년 현재 톰스크 주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은 9개의 대학교와 4개의 분교(러

시아국립법학대학교 서시베리아분교, 민족학연구대학교 분교인 세베르스키기술대학교, 노보시비르스크국립농업대학교의 분교인 톰스크농업대학교, 러시아국민경제아카데미 톰스크분교)가 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톰스크 주 고등교육기관

명칭	국립/사립	설립년도	위치
시베리아국립의과대학교	국립	1888	톰스크
톰스크신학대학교	사립	1858	톰스크
톰스크국립건축건설대학교	국립	1952	톰스크
톰스크국립사범대학교	국립	1902	톰스크
톰스크국립경영체계·방사선에너지대학교	국립	1962	톰스크
톰스크국립대학교	국립	1878	톰스크
톰스크비즈니스대학	사립		톰스크
톰스크비출석경법대학	사립		톰스크
톰스크비즈니스대학	사립	2000	톰스크
톰스크폴리테크대학교	국립	1896	톰스크

<그림 24> 톰스크신학대학교(1858년)



5. 문화

5.1 문화개황

톰스크 주에는 슬라브문화, 기독교문화, 주술문화, 그리고 무신론적 경향이 공존하면서 폭넓고 스펙트럼이 다양한 독특한 전통문화가 형성되었다. 톰스크 주에는 수많은 문화시설들이 있다. 8개의 전문극장, 100여개의 박물관, 300개 이상의 도서관, 300여개의 창작 센터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60개 이상이 ‘국민’과 ‘모범’이라는 이름을 갖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단체이다. 또한 2개의 전시관과 톰스크 주 필하모니, 38개의 어린이 음악학교와 예술학교, 톰스크 음악전문학교, 사회문화기술혁신전문대학, 톰스크국립대학교 산하 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주립교습센터, 러시아예술창작동맹의 6개 지국, 30개의 민족문화단체, 톰스크 주 주민우호전당 등이 있다.

지역축제로서 ‘톰스크 카니발’이 유명하다. 톰스크 카니발은 2005년 ‘청년의 날’인 6월 26일에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65개 단체가 참가하여 톰스크시의 주요광장과 거리를 퍼레이드를 펼쳤다. 2017년 현재까지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되고 있다.

<그림 25> 톰스크 주 카니발(2016년)



5.2. 문화유적과 관광지

1) 톰(Томь)강

톰강은 서시베리아에 위치한 오비(Обь)강의 지류들 중 하나이다. ‘베르시나 토미(Вершина Томи, 톰강의 정상이란 뜻)산’과 ‘카르리간 산맥’의 북쪽 지맥 사이에서 발원한다. 톰강의 넓이는 최대 3킬로미터이고 길이는 827킬로미터에 달한다. 톰강의 강속은 초속 0.33미터이며 여울에서는 초속 1.75미터까지 이른다. 10월 중순이면 톰강은 얼음으로 덮이며 4월에 얼음물이 녹기 시작한다.

툼강의 물은 그 성분과 특징 때문에 독특한 담수들 중 하나로 꼽힌다. 물은 무미, 무색, 무취이지만 부유물의 응축이 5~6밀리그램/리터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툼강의 물은 제1급 용수로 사용된다.

<그림 26> 오비강의 지류 툼강



2) 체호프 동상

안톤 체호프(A. П. Чехов)는 1890년에 사할린으로 가는 길에 툼스크를 일주일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도시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신의 수기에 적어 놓았다. 체호프는 툼강변에 위치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지금 그곳엔 ‘슬라반스키 바자르’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그 건물 입구 앞에 체호프 동상이 서 있다. 체호프 동상의 코와 발을 만지는 여행객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너도나도 만지는 바람에 체호프 동상의 코와 발은 항상 반질반질하게 윤이 난다. 동상에 묘사된 체호프는 캐리커처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그로테스크한 모습이다. 비뚤어진 모자에 험령한 외투, 한쪽으로 기울어진 안경, 맨발의 거대한 발을 한 모습이 희극적이다. 동상 밑에는 ‘<카슈탄카>도 읽은 적 없이 도랑에 누워 있는 술 취한 농군의 눈으로 본 툼스크의 안톤 파블로비치!’라고 적혀 있다. 이런 식으로 툼스크시는 체호프에게 나름의 ‘복수’를 한 것이다.

체호프 동상은 2미터에 달하는 청동상으로 2004년에 툼스크시 400주년 기념으로 강변에 세워졌다. 동상의 제작자는 유명한 조각가 레온티 우소프(Леонтий Усов)이다. 체호프 동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제작되었다.

툼스크 주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대한 작가 체호프를 모욕했으니 동상을 치워야한다는 의견과 툼스크시의 명소이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

다.

<그림 27> 톰강변의 체호프 동상



3) 톰스크 역사박물관

톰스크 역사박물관은 톰스크시의 문화적 명소들 중 하나이다. 박물관은 파데예프(B. Фадеев)의 설계로 1895년에 건축되었다. 처음에 이 건물은 보스크레센스카야 경찰청으로 사용되었다가 주거용 건물, 관광소 등으로 이용되었다. 그 후 20세기 말에 서야 톰스크 역사박물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2003년 6월에 공식 개관식을 열었으며 첫 전시회의 이름은 '오래된 톰스크의 초상'이었다. 현재는 4200점 이상의 전시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림 28> 톰스크역사박물관



4) 루블 동상

톰스크시에는 매우 독특한 루블 동상이 있다. 톰스크시 노보-소보르나야 광장에 위치한 목재 루블 동상은 2008년 6월 제4회 톰스크 카니발에 맞춰서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톰스크시에 루블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이 지역이 목재 건축물과 산림 자원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다. 톰스크 루블 동상은 소나무로 제작되었으며 1997년에 발행된 1루블짜리 동전을 모델로 하여 100배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루블 동상의 중량은 250킬로그램이고 지름은 2.1미터이다. 습기로부터 동상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 유리에 보관되어 있다. 톰스크 지역 주민들은 이 동상을 만지면 부자가 되고 동상에 동전을 던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고 있다.

<그림 29> 루블 동상



5) 톰스크 맥주박물관

톰스크 주의 '톰스크 맥주'(Томское пиво)사가 있던 오래된 건물에 '톰스크 맥주'박물관이 위치한다. 이 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하였는데 우랄 지역의 최초 맥주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독특하고 오래된 맥주잔, 상표, 맥주병, 맥주 제조에 관련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품들은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다양하다.

맥주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현대식 설비의 맥주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원료의 발효과정부터 완성된 맥주를 병에 따르는 단계까지 직접 관찰 수도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직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또한 맥아나 홉의 냄새를 맡아보거나 '톰스크 맥주'사가 내놓은 여러 종류의 맥주를 시음할 수도 있다.

<그림 30> '톰스크 맥주' 박물관



6. 한국과의 관계

2010년 현재 톰스크 주의 주재하는 한국인 수는 약 5명이고, 재러시아 한인(고려인) 수는 약 1,150명이다. 톰스크 주의 톰스크시는 울산시와 2003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계속 상호교류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대전시와도 의료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6.1. 이범석의 『톰스크의 하늘 아래서』

독립운동가 철기(鐵驥) 이범석(1900~1972)은 대한민국의 제1대 국무총리(1948~1950) 및 국방부 장관(1948.08~1949.03)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1922~25년에 소련 합동민족군 연해주지역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으나, 소련의 배신으로 톰스크에 억류된 경험이 있다. 톰스크에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톰스크의 하늘 아래서』라는 자전적 성격의 소설을 집필하였다. 소설의 주제는 젊은 독립운동가가 톰스크에서 러시아 처녀 올라를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남자 주인공은 올라에게 작별을 고하게 되고 올라는 결국 자살하게 된다. 나중에 남자주인공은 사랑했던 여자의 자살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는 줄거리이다.

6.2. 울산시와 톰스크 시 자매결연

2003년 11월 12일 울산시와 러시아의 톰스크 시 간의 자매결연이 러시아 톰스크 시 소재 톰스크국립대학에서 체결됐다.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은 러시아 톰스크시를 방문한 울산시의 박맹우 시장과 김철욱 시의회의장, 톰스크시의 알렉산더 마카로프 시장과 니콜라이 추크 시의회 의장이 자매결연협정서에 공동서명 함으로써 성사됐다.

이 자매결연은 톰스크 시 400주년 기념기간에 체결되어 의미가 깊었으며, 자매결연협정서 조인식에는 톰스크 주 부지사, 톰스크 주 의회의장, 톰스크공대총장, 톰스크국립대총장, 상공회의소회장, 고려인 단체대표 등 30여명의 톰스크 시 대표들이 참

석하였다.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이 가지는 의미는 세계적인 공업생산도시와 과학기술 도시가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톰스크 시의 세계적인 기초과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톰스크 시의 과학기술자 초청사업과 양 도시의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러시아 톰스크 주 대표단 울산 방문(2014년)

러시아 톰스크 주 대표단이 울산의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14년 2월 28일과 3월 1일 울산시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톰스크 주 경제부지사 안드레이 안토노프를 단장으로 톰스크 주 투자국장 등 경제부서장과 특별경제지역대표, OJSC 톰스크 주 개발조합국장, 톰스크 주 고려인문화자치의회 의장 등 5개 단체 10명이다. 울산시는 톰스크 주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성공적인 산업화와 함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울산의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배우고자 희망함에 따라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 울산시와 북극항로 환경변화 대응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시 차원에서 이뤄지던 교류를 주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울산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단지를 시찰했다.

<그림 31> 경상일보 2014.03.02.



6.4. '제4차 한-러 기술협력 포럼' 개최(울산시, 2014.12.02.)

울산시에서는 2014년 12월 2일 러시아의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첨단기술을 국내로 이전해 사업화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장으로 '제4차 한-러 기술협력 포럼'을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울산테크노파크 기술이전사업화전문센터와 톰스크 주 국제교류과 막심

볼코브(Максим Волков) 과장을 중심으로 톰스크국립대학교, 모스크바국립항공대학교, 이르쿠츠크 국립공대를 비롯한 5개 대학교에서 15명의 교수진들이 참가하였다. 이들 교수진 가운데에는 직접 기술사업화를 추진해 창업한 기업대표들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 원천기술 중심의 러시아 연구기술은 물론 사업화 초기단계의 기술들까지 발표돼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기업들과의 기술미팅도 즉석에서 이뤄지며, 기술미팅 후 현장 방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사 다음날 러시아 과학기술인들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기술에 대한 상담과 기술협력을 위한 추가 논의가 이어지면서 성황리에 포럼을 마쳤다.

6.5. 대전시의 톰스크시 방문(2016.10.12.)

대전광역시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의료관광객 유치에 위해 시와 충남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과 공동으로 자매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와 톰스크 주에서 대전 의료관광의 우수함 알리면서 의료관광객 유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016년 10월 6일에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주 및 시정부를 방문해 주정부의 보건국장과 시정부 사회정책국장 등을 접견하고 양 도시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인 등 인적교류, 의료시스템 및 정보 교환, 의료세미나, 컨퍼런스 참가와 양 지방정부간 소통이 가능한 창구 개설 등을 논의해 앞으로 양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대전시 홍보단은 노보시비르스크 주립대학병원과 니토병원, 톰스크 주의 마이크로서저리병원, 시베리아공립의대 등을 방문해 병원장 및 총장 등을 예방하고 러시아와 한국의 의료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양 도시의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환자 케어협진을 비롯한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등을 협의했다.

<그림 32> 노보시비르스크와 톰스크 지역을 방문한 대전시 홍보단
(충남일보 2016.10.12.)



<참고 문헌>

극동 시베리아 개황 2011. 4.

외교부 <http://www.mofa.go.kr>

경상일보 2014.03.02.

충남일보 2016.10.12

<https://ru.wikipedia.org/wiki/>

<http://old.tusur.ru/export/sites/ru.tusur.new>

<http://nesiditsa.ru/city/tomsk>

<http://www.openarium.ru>

<http://irao-engineering.ru>

<https://obzor.westsib.ru/article/>

<http://tomsklife.narod.ru>

<http://tuz-tomsk.ru>

<http://www.vladtime.ru>

<https://tomsk.gov.ru/>

<https://duma.tomsk.ru/fraction>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http://terms.naver.com/>

<사진 출처>

구분	출처
표지1	http://tuz-tomsk.ru/exhibition/priroda_tomskoy_oblasti_cherez_obktiv_fotokamery?desktop?mobile?desktop?mobile?desktop?mobile?desktop
표지2	http://tomsklife.narod.ru/1024/Gerb3.jpg
표지3	https://obzor.westsib.ru/article/342607
서문1	http://krasivye-mesta.ru/tomskaya-oblast
서문2	http://goldpart.ru/page/tomsk_rossiya_foto/
서문3	http://mklogistic.ru/snejnoe_mestorojdenie
서문4	http://onf.ru/sites/default/files/styles/new_fotog_in_node/public/node_gallery/baturino_rubka_lesa_7.jpg
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5/Map_of_Russia_-_Tomsk_Oblast.svg
2	http://www.vladtime.ru/proish/604362
3	https://tomsk.gov.ru/nature-newrec
4	https://infourok.ru/prezentaciya-po-geografii-na-temu-pochvi-tomskoy-oblasti-1041509.html
5	https://market-lab.org/news/obligatsii-tomskoj-oblasti-povysili-v-urovne-listinga
6	https://rosphoto.com/ugallery/konkurs_travel-fotografii_priroda/32610
7	https://tomsk.gov.ru/symbols
8	https://tomsk.gov.ru/symbols
9	https://chudesamag.ru/iz-glubinyi-vekov/nas-okruzhayut-miriady-i-inyih-sushhestv.html
10	http://old.tusur.ru/export/sites/ru.tusur.new/ru/news/2013/08/16-1.png
11	https://gubernator.tomsk.ru/storage/76620/036-600x403.jpg
12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8/Tomsk3120.jpg
13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c/c6/6th_Legislative_Duma_of_Tomsk_Oblast.svg
14	https://alumni.tpu.ru/istorija-uspeha/index.html?id=84
15	https://wiki2.org/ru/
16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17	http://wikimapia.org/22510846/ru/
18	http://biz2bizz.com/articles/394-otrazilsya-li-krizis-na-razviti-rossiyskogo-rynka-spichek.html
19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5/Bridge_over_Tom_River_Siberia_Russia.jpg

20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f/Tomsk_Pri vokzalnaya_square_1.jpg
21	http://irao-engineering.ru/ru/projects/tomskaya-tets-1/
22	https://www.tomsk.gov.ru/about-invest
23	https://ru.wikipedia.org/wiki/
24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5/Tomsk_Region_num.PNG
25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26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4/Museum_of_Tomsk_Seminary.jpg
27	http://towiki.ru/w/images/d/d2/Carnaval01.jpg
28	http://foto-planeta.com/photo/328307.html
29	http://nesiditsa.ru/city/tomsk
30	https://www.votpusk.ru/gallery/foto.asp?DST=20329&P=1
31	https://www.votpusk.ru/gallery/foto.asp?DST=20336&P=1
32	http://www.openarium.ru/
33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115
3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879

<표 출처>

구분	출처
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2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3	https://ru.wikipedia.org/wiki/
4	https://ru.wikipedia.org/wiki/